

1. 의심이 너무 많이 드는데 제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자꾸 의심이 생길까?”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지, 나와 함께하신다면 왜 이렇게 외로운지 질문이 꼬리를 묻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까’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의심하지 않을 텐데’, ‘내 믿음이 부족한가?’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질문을 억지로 눌러둔 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둘러보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던 인물들도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답답함과 슬픔에 젖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라며 솔직한 탄식을 부르짖었습니다. 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절망적인 고난 앞에서 자신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악이 횡행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주께서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라며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탄식했지만, 그 질문을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답답한 마음과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곧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 그 질문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찾고 싶은 진지한 갈망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물론 의심이 깊어져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시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억지로 확신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믿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믿음은 세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 당장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질문은 이 땅에서 끝내 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찾는 삶의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과 의심이 생기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과 의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를 들여다보며 자책하기보다, 질문이 꼬리를 물 때일수록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은 질문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의심이나 질문이 생기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는 편인가요?

- 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자책한다
- ②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한다
- ③ 답을 찾으려고 성경이나 사람을 찾아본다
- ④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덮어둔다
- ⑤ 하나님과 거리를 둔다
- ⑥ 기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나요?

- 하나님을 신뢰하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 _____

-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_____

-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 질문이나 고민은 무엇인가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과 의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찾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책하기보다 우리보다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답을 알지 못해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질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